

# 남원시, 드론산업 중심지 도약

### 국토부와 국산 기체 활용 2027 DFL 첫 세계 드론레이싱 월드컵 추진

남원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산 기체 활용 2027 DFL 첫 세계 드론레이싱 월드컵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드론 레이싱 스포츠 육성 분야에 최종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국토부가 개발한 국산 기체 DFL 활용 DFL 글로벌화·상용화·국산화를 통해 드론 레이싱 풍조 도시로서 2025 국제드론제전을 개최하고 드론 레이싱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글로벌 드론 레이싱 스포츠 산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제3회 남원드론제전을 개최하고 국토부에서 개발한 국산 드론(DFL 기체)을 활용한 국토부장관배 국제 대회 개최로 DFL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교육 등을 통한 DFL 상용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애물 및 센서 도입을 통한 경기 시스템 DFL 국산화를 집중

추진하여 대한민국 드론 레이싱 스포츠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하여 드론 산업 테스트베드도시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k-드론 배송 실증사업을 통해 도내 최초로 10개 장소에서 772km를 날아 172회의 드론 배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등 K-드론배송 표준안에 따른 남원형 드론 배송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k-드론 배송 분야에 최종 선정되어 남원형 드론 배송체계 사업화·상용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73억원을 투입해 바람이나 호우 등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실내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남원을 드론

레이싱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발돋움을 본격 시작하고 있다.

또한 시는 항공기 및 드론 제조 업체 기업이 남원일반산업단지 내 16,500㎡ 부지에 2025년부터 1,000억원을 투자해 항공기 구조물, 드론 및 AAM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의 투자유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공·드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남원의 미래 성장 동력인 드론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해 DFL 중추도시로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국산 기체 DFL 드론 레이싱대회로 2025 국제드론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화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봄맞이 관광객 복직

### 옥정호 출렁다리·봉어섬 생태공원 재개장... 벚꽃축제 기대감 ↑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이 재개장한 가운데 봄맞이 관광객 복직이며, 오는 4월 열릴 옥정호 벚꽃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군은 지난 1일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을 재개장한 이후 4,8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1절 주말 연휴에는 곳인 날씨에도 불구하고, 4,500여명이 방문하며 주말에 가고 싶은 핫한 관광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내달 5일 첫 번째로 열리는 축제인 옥정호 벚꽃축제를 비롯해 계절꽃 경관을 보기 위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사계절 꽃 사재 및 편의시설 정비 등 방문객 맞이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오는 4월 5일과 6일 이틀 간에 걸쳐 열리는 옥정호 벚꽃축제를 앞두고, 더 특별하고 각별한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벚꽃 만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막식 축하공연부터 뜨거운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트롯 대세인 손태진과 김다현, 양지원, 강혜연의 축하공연 소식도 알려지면서 SNS 등에 '임실로 놀러가겠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천만관광 임실시대로 가는 노력이 일환으로 특색있고 조화로운 경관 조성에도 더욱 힘써, 다시 찾은 옥정호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며 “옥정호 벚꽃축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화려한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맛있는 먹을거리 등 실컷 즐기면서 봄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발전 위한 국비 확보 총력

### 최영일 순창군수, 중앙부처 방문 적극 지원 요청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6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순창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 군수는 주요 부처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순창군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최 군수는 행안부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과의 면담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순창군의 인구 증가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장류산업 특구와 연계한 '정독 타워'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6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청년·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조성환 지역경제국장을 만나 '고

향올래 공모사업'과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순창군은 풍산면에 있는 귀농 귀촌지원센터의 낡은 창고 등을 정비해 '두 지역살이 베이스캠프'를 조성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거주와 체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마지막으로, 강성희 재난경감과장을 찾아 순창군 풍산면 한내(해)구의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최 군수는 2026년부터 2년간 추진될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7억원 중 시설설계비 1억원을 적극 건의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이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영민 기자

# 민선식 남원부시장, 대규모 사업 추진 위한 현장 점검

남원시 관계자는 민선식 부시장이 1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민 부시장은 지난 6일부터 △달빛정원과 스마트 루나 △명지각 △광안사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광안동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등 사업장현 방문하여 신속 집행과 연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당부했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주요 사업들의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광안사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광안동원 중심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 등 광안동원과 공설시장을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민 부시장은 남원 인재학당 건립,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민간공원 조성 사업장 등 현장 방문을 오는 14일까지 추진하며, 주요 사업들이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접수

남원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저출산 시대의 임산부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소멸 예방 및 지속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출산시 출산장려금, 축하용품 구입비,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산부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과 농식품 바

우체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본사업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3월 4일부터 24일까지 임실·출산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 확인서 등)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예외이메일(www.ecoemai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경찰서, 군부대 사칭 사기 범죄예방 총력 대응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 사칭 사기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군부대 사칭 사기 범죄는 군 간부를 사칭하여 도시락, 자재 등을 주문하면서 타 업체에 대금 대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군부대·지자체와 협업하여 △

이장단·상인회 대상 예방 교육 △관내 소상공인 업소 방문 전단지·홍보 스티커 부착 및 전광판 활용 홍보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소상공인에게 사기 수법을 홍보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올해부터 매년 56세가 되는 남원시민에게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

C형간염은 조기 발견으로 치료하지 않을 시 만성 간질환과 간암으로 이어지고, 증중간질환으로 진행될 경우 1인당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 후 치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기준 1969년생(56세)으로,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병·의원에서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한다. 단, (삼급)종합병원에서 받은 확진검사는 제외된다.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정부24 누리집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남원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 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여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임실군이 올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예고 후 3월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예고제는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리 실태를 점검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다만 민원 발생 및 특별점검은 사전예고제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치시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